

김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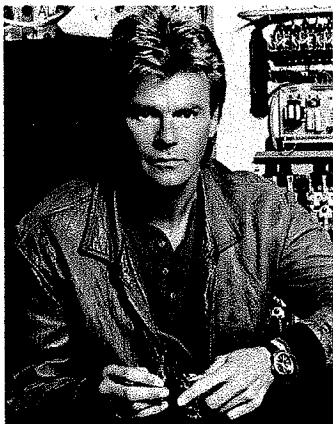
순천 옷장 파장 무렵 봄비 내렸습니다.
 우산 들고 싹거리 하러 간 아내 따라 갔는데
 파장 바닥 한 바퀴 휘돌아
 생선 오천원 조갯살 오천원
 도사리 배추 천원
 장짐 내게 돌리고 뒤따라오던 아내
 앞 서 가다보니 따라오지 않습니다

시장 벗어나 버스 정류장 지나쳐
 길가에 꾸그리고 앉아 비닐 조각 뒤집어 쓴 할머니
 몇 걸음 지나쳐서 돌아보고 서 있던 아내
 손짓해 나를 부릅니다
 냉이 감자 한 바구니씩
 이천 원에 떨이미 해가시오 아줌씨
 할머니 전부 담아주세요
 빗방울 맺힌 냉이가 너무 싱그러운데
 봄비 값까지 이천 원이면 너무 싸네요
 마다하는 할머니 손에 삼천원 꼭꼭 쥐어주는 아내

횡단보도 건너와 돌아보았더니
 꾸부정한 허리로 할머니
 아직도 아내를 바라보고 서있습니다
 꽃 피겠습니다

◀그리운 날의 흑백TV ▶ 맥가이버 (Macgyver)

아무런 무기도 없이 종이 클립이나 신발끈을 이용하여 바주카포의 위협속에서 탈출하는 맥가이버는 맨손이지만 그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무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화학,공학등의 원리를 이용하여 위기를 반전시킬만큼 증명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가지고 다녔던 "Swiss Army Knife"를 그때부터 '맥가이버 칼' 로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고 맥가이버 헤어스타일도 한때는 유행이었습니다. 쓴웃음의 연기는 자칫 긴장되기 쉬운 내용을 재밌게 하였습니다. 성우 배한성씨의 목소리와 맥가이버의 이미지가 딱 들어 맞았던 그리운 시절의 TV.....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 내는 기도생활(마태 7:8)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8권 10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6년 3월 12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최경주! 기도로 굿샷 날리는 코리안 탱크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크라이슬러클래식 마지막날(2005년 10월 3일)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포리스트오크스골프장 12번홀. 최경주의 샷이 조금 짧아 공이 그린 오른쪽 벙커에 빠져버렸다. 최경주는 벙커로 걸어가며 좋은 곳에 공이 놓여 있기를 기도했다. "공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이 손으로 갖다 놓아도 그렇게 좋은 곳에 놓지는 못할 거예요. 순간 파(Par)는 하겠다고 느꼈어요"

하얀 모래와 함께 날아간 공은 홀컵으로 빨려들어갔다. 코리안 탱크 최경주가 3년 만에 PGA투어 우승을 차지한 순간이었다.

말씀의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것은 1992년. 모태 신앙인 아내를 만나면서 부터다. 최 선수는 아내의 권유로 교회를 나갔고, 신앙을 키워나갔다.

"결혼 초 아내는 함께 기도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강요는 안했죠. 아내는 피곤하니 누우라고 하며 제 발을 잡고 기도해 주었어요. 저는 피곤해서 잠들어 버리고요. 눈뜨면 아침이었죠. 참 미안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함께 기도하게 됐어요. 아내와 함께 새벽예배도 다녔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예배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있어서 주일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상황이 달랐어요. 중소도시 대부분 교회 예배가 한 번 정도라 경기가 있으면 주일성수하기가 힘들더라구요. 예배를 안드리니 신앙이 영키는 것 같고... 그래서 아내와 저는 수요일예배는 빠지지 말자고 했죠. 수요일예배는 시합 전날이니깐 아침이든 저녁이든 무조건 드리자라고 마음을 먹고 예배를 드리죠"

2001년 최경주 선수는 마이애미에서 열린 Q스쿨에 참가했다. 최 선수는 54위를 기록했다. 합격선은 35위까지였다. 주일 시합마치고 가족 모두 교회로 향했다.

"주님밖에는 어디에도 매달릴 곳이 없었어요. 정말 절실했어요. 그 때 우리 가족은 '주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을 부르고 또 불렀어요. 내일 떨어지면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정말 막막했어요. 미국에 온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Q스쿨 마지막날 6라운드 마지막 홀. 역시 어려운 상황이었다. 앉아서 라인을 보는게 아니라 기도를 했다. 최 선수가 살짝 친 공은 순간 멈추더니 홀로 들어갔다.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었다. 뒤를 돌아보니 아내가 울고 있었다. 결국 34위로 Q스쿨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 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듭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말씀따라 행하기▶
 같은 1달러라도
 교회에 가져 갈 땐
 커 보이고
 가게에 가져갈 땐
 작아 보인다

◀인품따라 행하기▶
 남을 비판하면서 마음이 아파지면
 비판해도 좋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느낄 때는
 입을 다물어야 한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갈 이
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인 도 자
찬 송 Hymn	34장	다 갈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10 (시 27편)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성 찬 식	
	분 병 분 잔	분병위원 분잔위원
찬 송 Hymn	186장	다 갈 이
기 도 Pray		박일영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고린도후서 2:12-17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219장	다 갈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갈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3월 예배위원◆

일자	기 도	헌금위원	안 내
26	지찬영	정성호	<본당> 김순자 노은숙
5	노은숙	정이지	
12	박일영	조은희	<현관> 박일영 최재학
19	이광희	조재근	
26	이규임	차현주	

◆3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5	성찬주일 사순절시작(1) 월초새벽기도회(1) 남선교회(3)구역예배(10)
12	믿음의어머니기도회(14)
19	
26	이삭줍기주일 수요수도원(29)

2006년 신앙생활: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이사, 이민으로 교회를 찾으신다면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바른 판단이 섭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오후 2시

*잊지 마십시오. 다음주일(19일)부터 Day Light Saving Time이 끝납니다. 한 시간을 뒤로 돌려놓으면 웬지 24시간이 더 넉넉해진 듯한 기분입니다.

1. 교우소식

<등록> 김은정 집사(6구역)정요한(아동부)

☎833-6577 366 Swanson Rd. Ranui

<장례> 강보원 집사 모친, 권광순 권사 시모께서 지난 5일 별세.

*9일 장례식을 가졌습니다. 병들어 약해지신 모친을 돌보시다 하나님 품으로 보내신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효성의 축복이 가득하실 것입니다.

2.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14일(화) 오후 1시> <참가대상: 갈보리 여성교우>
*어머니가 드리는 기도가 가장 간절하다면 어머니의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
는 참 맑고 아름다워 그 응답이 깊을 것입니다.

3. 제5여선교회 <1966년생 이후> Tea Time 을 하면서 잔디밭에서 모입니다

4. 금요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55분>

*건강상 문제가 없다면 일주일 중 몇일쯤은 새벽에 일어나 집 근처 교회의 새벽제단을 찾는 발길이 되어보세요. 기도응답은 그런 순수함과 열심에서 시작됩니다.

◀착한 시인들▶

『어머니도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쩌다 드리는 안부 전화
외할머니와 통화하시는
어머님의 얼굴이 환하십니다.
선 고개를 바라보는 분이
엄마하고 부리는 애교라니요
잊고 있었습시다.
나의 어머니도
누군가의 귀엽고 소중한 딸이었던 것을
원래부터 날 위해
희생하시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나로 인해
말에서 어머니로
다른 길을 걷게 된 당신...
오늘 따라 당신의 손길이 더 애뜻합니다
사랑합니다...어머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만큼 내
자식에게 주면서 사는 줄 알았
는데 해가 갈수록 그 받은 만
큼의 크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인
생은 지나고 나서 뒤돌아 보아
야 깨달아 지는가 봅니다.
자녀들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신 교우의 노모의 모습이 세
상 모든 어머니들의 모습으로
다가 왔습니다.